



최근 지식과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력이 거래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경제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오프라인 작업장에서 주로 조직되었던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찰되는 변화는 플랫폼 노동이라 불리는 일의 조직과 작동방식의 변화다.

플랫폼 노동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중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중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된다.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노동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노동자를 온라인 플랫폼에 불러들여 오로지 콜별·건별·프로젝트별로 노동력을 추출한다는 점에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맞추어져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승운·백승호·남재욱(2020)은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산업노동학회)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일의 조직과 작동방식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보수와 근로시간의 결정, 노동 통제의 방식 등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포괄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장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형태 또는 시간제근로자로 포괄하고 보호하는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자는 대부분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보수 지급도 플랫폼기업과 노동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특수고용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법률과 사회보장제에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법률은 시간제 근로자에

게 시간비례원칙(pro rata temporis-principle)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개방형 계약이나 전일제 계약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된다.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지급 시에도 가구소득이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에 미달할 경우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의 개념이 시간단위로 구성되어 매우 유연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사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제에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

셋째,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종속성이 위의 두 유형에 비해 낮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객과의 가격 협상 등이 가능하며, 산재위험이 매우 비가시적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숙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사적으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의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1층 소득보장 기능을, 전국민고용보험(소득보험)은 2층의 소득비례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 \_ 백승호